

(주)고려비엔피

「힘백 달구방 비엔 투플러스 생백신」 2000수분 출시



(주)고려비엔피는 지난 1월 출시된 「힘백 달구방 비엔 투플러스 생백신」 1000수분에 이어 최근 2000수분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힘백 달구방 비엔 투플러스 생백신」은 닭 뉴캐슬병(유전형 7형)과 닭 전염성기관지염(IB K2)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으로, 이번 출시된 2000수분 제품은 기존제품보다 농가에서의 사용이 편리하며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고려비엔피 한장혁 전무는 “최근 양계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질병이 신장형-IB 감염으로 인한 피해이고, 조기감염으로 인해 폐사율 및 산란율에 큰 영향을 키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화장에서부터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힘백 달구방 비엔 투플러스 생백신」 사용은 분명 양계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대표 2014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 리더십경영 수상 영예

지난 11월 27일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대표가 매경닷컴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MBN이 후원하는 '2014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 시상에서



리더십 경영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산·학·연(産學硏) 전문가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로 한국 경제발전의 선두주자들을 엄선되었고, 이번에 선정된 내용은 경영 철학과 모범 사례를 모아 도서로 출판되었다. 이번 시상은 철저한 준비와 도전으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움츠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점에서 크게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보균 대표는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최첨단 동물영양 기술이 축적된 신제품과 농장 생산성을 높이는 사양 프로그램으로 농장 서비스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또한 각종 세미나, 사양가 회의, 축산인 교육 프로그램, 미래 2세 축산 인재 교육을 통해 한국 축산업 육성을 노력해 온 국내 축산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축적된 동물영양에 대한 기술과 경험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사양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완전한 동물영양 개선 및 고객의 수익성 극대화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카길 글로벌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지난 11월 10일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는 전세계 1,000여개 카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시한 카길 회장 상(Chairman's Award) 부분에서 최고 영예의 상인 스피콜라 상(James R. Spicola Award)을 수상하였다. 카길 회장 상(Chairman's Award)은 글로벌 카길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상으로서 뛰어난 성과와 실적을 이루어낸 사업부, 팀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 중 스피콜라 상(James R. Spicola Award)은 전반적인 경영관리 시스템과 중장기 사업성과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장에 수여하는 최고 경영대상으로 카길 전세계 1,000여개 사업장 중 단 두 사업장만이 James R. Spicola Award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어 그 어떤 수상보다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올해로 25년째 진행된 이 시상식의 가장 큰 목적은 카길 각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서로 배우고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있다. 특히 이번 한국팀의 수상은 FMD 및 불황 등의 쉽지 않은 사업 환경에서 한국 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업적으로 시도하고, 고객을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 한 부분이 크게 인정 되었으며, 한국의 성공적인 사업을 전세계에 잘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 가져

지난 4일 재단법인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



사장 이보균)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4년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시상식을 열고, 축산, 사료 분야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개인부문으로는 김태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성경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장, 양철주 국립순천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단체분야로는 한국가금학회에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한편, 이보균 이사는 “문화재단 활동은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번 수상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연구와 활발한 학회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주)팜스코

제2회 베품&나눔 안성시민 릴레이 대축에서 기부금 전달

지난 11월 29일 ‘제2회 베품&나눔 안성시민 릴레이 대축제’에 (주)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안성시 석정동의 내혜를 광장에서 진행된 ‘제2회 베품&나눔 안성시민 릴레이 대축제’는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와 안성복지신문이 주관하



는 것으로 '배풀고 나누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라는 슬로건에 맞춰,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다문화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과 기부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관내 기업체, 기관·사회단체장,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안성시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반 후원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해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더 큰 나눔의 문화가 형성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는 자리라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안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팜스코는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정찬 회장에게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뜻 깊은 행사의 취지에 동참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릴레이 축제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가져온 물품과 후원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베품&나눔 캠페인과 관내 기업체와 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사랑나눔 전달식, 사랑의 밥차,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놀이와 평양통일예술단, 경음악 합주 등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후원과 기부금은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관내 면역력 결핍질환인 IPEX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축산업계의 선두 기업 (주)팜스코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 환원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동우

사랑의 김장담그기 나눔봉사활동 실시



(주)동우 (대표 김종관)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28일 본사에서 전북 군산 서수지역 독거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나눔봉사활동 행사를

실시 하였다. 이번 행사는 군산 서수지역 내 독거생활로 힘든 몸과 겨울살이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분들에게 김장김치, 쌀 및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였다. (주)동우 임직원들은 동우 본사에 모여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쌀을 직접 나눠 드렸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과 다가오는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을 모아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종관 대표는 직접 “고난이나 슬픔을 서로 나누면 나눔의 반이 되고, 기쁨과 사랑은 나누면 나눔의 2배가 된다.”라고 말하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의 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여 의미있는 행사를 마쳤다. 한편, (주)동우는 닭 가공 전문기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닭고기를 기증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